광양, 4차 긴급생활비 30만원 지급

시의회 협조 지급계획 조기확정 내달 30일부터…총 575억 투입 만 19세 이하 40만원 추가 지원

광양시가 4차 긴급재난생활비를 다음 달 30 일부터 9월 29일까지 지급한다고 광양시의회 와 공동으로 26일 발표했다.

지원금은 모든 시민 1인당 30만 원이며, 만 19세 이하(2002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는 40 만 원을 추가해 70만 원을 지급한다. 총사업비 는 575억여 원이며 전액 시비로 마련한다.

광양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보편적 지급을 하는 한편, 그동안 코로나19로 학습보육권 등 피해가 컸으나 지난 2년여간 별다른 지원을 받 지 못한 학생과 학부모들을 좀 더 두텁게 지원 해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광양'의 명성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지급대상은 소득・나이・중복수급 여부와 상 관없이 지난 7월 1일 0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 까지 주민등록상 광양시민이며, 광양에 국내체 류지로 등록된 외국인과 국내 거소지로 신고된 외국국적 동포, 9월 29일까지 출생등록을 완료 한 출생아도 포함된다.

지급은 광양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으로 병행 지급한다. 1인당 광양사랑상품권 25만 원, 온누리상품권 5만 원을 지급하며, 만 19세 이하는 광양사랑상품권 55만 원과 온누리상품 권 15만 원을 지급한다.

상품권 카드는 유흥·사행성 업소,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 등을 제외한 지역 내 모든 카드 가 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온누리상품권은 전통 시장과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급신청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 1인이 일괄 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인은 신청서 작성 후 신 분증과 위임장을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신 청 즉시 수령할 수 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이번에 지급될 4차 긴급 를 통해 최종 의결된다.

가게를 활용한 리빙랩 추진

재난생활비가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데 보탬 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시와 시의회 는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시민 안전과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최우선에 두 고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영배 광양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의회는 시민 대의기관으로서 긴급재난생활비 지급과 관련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으며 많이 고민했 다"며 "집행부와 시의회의 협치로 지역경제 활 성화는 물론 지역사회의 갈등 해소와 통합의 계 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시와 시의회는 여러 차례의 협의와 논 의 끝에 대승적인 차원에서 뜻을 같이했고,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지급과 함께 교육비 와 양육비로 큰 부담을 겪고 있는 가구에 좀 더 확대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며, 부족한 40여억 원 은 지방소득세의 추가 재원으로 충당키로 했다.

이번 재난생활비는 오는 28일 광양시의회 예 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9일 본회의 /권동현 기자

순천, 부정부패 없는 청렴행정 구현

종합대책 마련 · 역량진단 실시

순천시가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시 행정 구현 을 위해 반부패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청렴도 상 위권 도약을 위해 적극 힘쓰고 있다.

순천시는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 하는 청렴컨설팅 대상으로 선정돼 직원 1,053 명을 대상으로 반부패 역량진단을 하고 낮은 청 렴도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 ▲청렴도 향상 추진

체계 강화 ▲부패 취약분야 비위발생 예방 및 감찰강화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 계획 수립을 3대 추진전략으로 정하고 강력하게 실천하고 있다. 세부 실행계획으로는 ▲아침을 여는 청렴 방송 ▲전직원 반부패·청렴 교육 ▲청렴도 향 상 다짐대회 ▲청렴해피콜 민원만족도 조사 ▲ 청렴호루라기 발령 ▲갑질신고함 운영 ▲공직 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지침을 제정 · 운영 /순천=박경식 기자



광양시가 최근 2022년 지역밀착형 생활SOC 스마트화사업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생활SOC 스마트화사업 착수보고회

광양. 아이키움 플랫폼 구축 논의

광양시가 최근 2022년 지역밀착형 생활SOC 스마트화사업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지역아동센터, 용 역수행기관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 아이 키움 플랫폼 구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 사업은 지난 1월에 선정된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 11억 원을 투입 해 온라인 교육, 온라인 독서, MR스포츠 등 3 종의 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5년까지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사업 관련 부서를 비롯 3년간 18개 지역아동센터 50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광양시는 이번 사업으로 원격수업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계층 간 교육 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학습 성장지원에 이바지할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동현 기자

순천, '청소년 e스포츠대회' 내달 개최

총 2개 종목…12~19세 대상

순천시가 청소년들의 건전한 게임 이용 문화 정착 및 바람직한 여가문화 선도를 위 해 다음 달 20일 '순천시 청소년 e스포츠대 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 종목은 리그오브레전드와 카트 있다. 라이더 총 2개 종목으로 리그오브레전드는 단체전(5인 1팀)으로 진행하며, 카트라이 더는 개인전으로 진행한다.

대회 진행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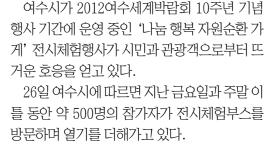
예선과 결선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리 그오브레전드 16개팀 80명, 카트라이더 64 명 총144명을 선착순 모집해 다음 달 14일 예선을 거쳐 20일 본선을 치른다.

순천시 거주 또는 순천시 관내 학교 재학 중인 12~19세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순천시 청소년 수련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다음 달 7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 /순천=박경식 기자



클릭!고향 속으로



여수. '나눔 행복 자원순환 가게' 호응

여수세계박람회장 EDG에서 열리고 있는 이 번 행사는 자원순환가게의 운영 활성화와 시민 참여 붐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수시가 운영 중인 '나눔 행복 자원순환 가게'전시체험행사가 시민과 관광객으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업사이클링 작품 전시와 올바른 분리배출 순환 가게'전시체험 행사에 많은 시민들의 참 26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금요일과 주말이 방법 홍보, 관광객과 시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재활용품 만들기 체험행사도 진행되고 있다.

특히 부모님의 손을 잡고 나온 어린이들이 병 뚜껑과 플라스틱 컵을 이용한 재활용품을 직접 만들면서 환경보호를 위한 산 교육장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여수시 관계자는 "박람회 10주년 기념행사에 맞춰 오는 31일까지 진행하는 '나눔 행복 자원 여를 바란다"며 "생활 속 작은 실천이 탄소중립 도시 여수를 만드는 큰 기적이 될 수 있다"고 말 했다. /여수=곽재영 기자

곡성 석곡면.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



순천대, 교양교과목 제안 공모전 시상식

순천대가 대학혁신지원사업의 하 나로 '2022학년도 학생 대상 교양교 과목 제안 공모전 우수작 시상식'을 최근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학생들 스스로 아이 디어를 제안해 학생공감 ·지역상생 · 대학혁신을 실현할 수 있는 교양교과 목을 개발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심 사위원 평가와 학생 온라인 투표를 다.

토대로 총 7과목이 선정됐다.

고영진 순천대 총장은 "앞으로도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신규 교양교과목 개발에 더욱 힘쓰겠 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 수상작은 교양교육과 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2023학년도 신규 교양교과목으로 개설될 예정이 /이주연 기자

곡성군 석곡면과 주민자치위원회 가 지난 25일 석곡 능암회관을 시작 으로 '마을로찾아가는 영화관'을 운 화 관람을 하게 됐다"며 "내년에도 영한다.

이번 행사는 영화관 방문이 어려운 9개 마을에서 다음 달 18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읍•면 회관을 순회 하며 진행된다.

능암회관에서 영화를 관람한 한 주

민은 "50년 동안 극장 한 번 가보지 못했는데 찾아가는 영화관을 통해 영 또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석곡면 박시열 주민자치위원장은 "작년부터 시작한 사업이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 해년마다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곡성=한정길 기자



보성차문화연구회, 창립총회 열려

목포대 전·현직 교수진과 국제차 문화과학 석·박사 통합과정 학우, 보 성지역의 차 전문가 등이 모여 결성 한 보성차문화연구회가 최근 창립총 회를 열고 본격 출범했다.

보성차문화연구회는 앞으로 보성 차문화를 주제로 학술회의, 연구용 역, 학술교류, 저서 출판 등을 통해 보성의 차 문화와 차 산업에 관한 조

사와 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조기정 회장 은 "보성의 차 역사는 삼국시대 이전 부터 이어져 왔다"며 "이 역사성을 알리기 위해 지역대학과 차문화 연구 전문가들이 앞장서서 연구하고 홍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성=백종두 기자